

메리놀회 관할 청주교구 내덕동 주교좌성당의 건축적 특징

김명선¹, 이정우^{2*}

¹선문대학교 건축학부, ²배재대학교 건축학부

Architectural Features of *Naedeok-dong* Cathedral, Cheongju Diocese under the Jurisdiction of Maryknoll Missioners

Myungsun Kim¹, Jeong-Woo Lee^{2*}

¹Division of Architecture, Sunmoon University

²Division of Architecture, PaiChai University

요약 미국 메리놀 외방전교회가 1953년부터 1969년까지 관할한 충북 지역(청주교구)에 건축한 18개 성당은 다른 카톨릭 외방 전교단체가 건축한 성당과 달리 특정한 건축 양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청주교구의 최고 위계이자 대표 성당인 청주 내덕동 주교좌성당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성당은 교구 내 다른 성당과 구별되는 독특한 건축적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 특징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기원을 추적하여 미국 메리놀 외방전교회 본부(1932)에서 건축 모티브를 가져왔음을 고찰한 후, 일제강점기(1923-1942) 메리놀회 관할 평양교구 주요 성당의 건축적 특징이 그 전례가 되었고 여기에서 파디(James V. Pardy) 주교 및 건축 전문가 박태봉(朴泰鳳)이 가교 역할을 했음을 밝힌다. 이를 바탕으로 내덕동 주교좌성당이 메리놀회의 해방 전후(1922-1969) 성당 건축사 및 한국 근대 성당 건축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정리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새로 발굴한 건축도면, 사진, 텍스트 등 1차 사료를 주로 활용하는 문헌 연구방법을 취한다.

Abstract Eighteen catholic churches, built in the Chungbuk area(Cheongju dioces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American Maryknoll missioners in 1953-1969, are not constrained by specific architectural styles, unlike those built by other foreign Catholic missionary organizations. The same is true of Naedeok-dong cathedral in Cheongju, which is the highest hierarchy and representative church of the diocese. Nevertheless, it has unique architectural features that distinguish it from other churches in the diocese. This study examined what those features were, how they were embodied, and their origins. This study also shows that the features are common in the missioners' churches in Pyeongyang diocese in 1923-1942 and that Father James V. Pardy and the architect Tae-Bong Park, played a bridging role in having the same features between the Pyeongyang and Cheongju diocese. In conclusion, this study summarizes the significance of Naedeok-dong cathedral in relation to the missioners' ideology, in the history of the churches in 1923-1969 and Korean moder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To this end, a literature search that utilized mainly primary sources, such as newly discovered architectural drawings, photographs, and text related to the cathedral, was performed.

Keywords : Naedeok-dong Cathedral, Maryknoll Missioners, Chinese Style Roof, Bell Tower, Park Tae-bong, James V. Pardy, Cheongju Diocese, Pyeongyang diocese

*Corresponding Author : Jeong-Woo Lee(PaiChai Univ.)

email: yvan1@naver.com

Received June 5, 2020

Accepted September 4, 2020

Revised July 7, 2020

Published September 30, 2020

1. 서론

한국 근대 성당건축사의 한 특징은 서양 전교단체의 선교이념이 건축형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1]. 거칠게 구분하면, 프랑스에 본부를 둔 파리 외방전교회(1836 입국) 관할 성당은 고딕양식을, 독일 성 베네딕토 수도회(1909 입국)는 로마네스크양식을, 아일랜드 성 골롬바노 외방전교회(1933 입국)는 영국식 고딕양식을 추종했고 미국 메리놀 외방전교회(1923 입국, 이후 '메리놀회'로 약칭)는 특정한 양식을 선택하는 대신 절충적 형식을 취하였다[1]; [2].

그런데 김정신은 1960년대 초 충북지역(청주교구)에서 메리놀회 소속 성직자들이 건축을 주도한 성당건축에는 4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보았다(성당과 부지 내 모든 부속 건물들의 배치 특징을 포함하여 총 5가지 항목을 언급했으나 본 연구는 배치 문제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 특징은 제외함)[3]. 즉, ㉠라틴 십자형 평면, ㉡벽돌 조적조 벽체 및 목조 지붕을 위에 기와를 얹되 중국풍 형태 지붕, ㉢반드시 미국 메리놀회 본부 종탑을 따르는 종탑, ㉣자유로운 공간구성과 융통성 있는 공간사용이 그것이다[1].

메리놀회가 청주교구를 관할한 시기(1953~1969)에 건축한 성당은 18개인데, 본 연구는 위 4가지 특징을 모두 가지는 경우는 청주 내덕동 주교좌성당(Fig.1, 1961년 준공, 이후 '내덕동성당'으로 약칭) 뿐이며, 나머지 성당들에서는 ㉢중국풍 지붕은 없고 ㉣종탑이 메리놀회 본부를 따르는 정도는 간략하거나 아예 종탑이 생략된 데 주목한다. 내덕동성당을 포함한 청주교구 성당건축의 특징을 고찰한 기존연구는 이 차이를 주목하지 못했다[5]; [6].



Fig. 1. Naedeok Cathedral
source: [3]

이에 본 연구는 1차 자료(도면, 사진, 문헌)를 새로 발굴하고 분석하여 내덕동성당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본다. 특히 ㉢중국풍 지붕과 ㉣종탑형식이 건축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도면과 사진을 통해 고찰하고 미국 메리놀회 본부 뿐 아니라 메리놀회 관할 평양교구(1923-1942)에 지어진 한양절충식 성당과 연계성도 밝혀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메리놀회의 전교 및 한국 성당건축사 측면에서 내덕동성당이 가지는 의미를 간략히 정리하겠다.

2. 메리놀회 관할 청주교구 성당

2.1 메리놀회 아시아 전교와 해방전 평양교구

메리놀회(Maryknoll Missioners)의 공식 명칭은 메리놀 외방전교회(Catholic Foreign Mission Society of Korea)이며, 1911년 6월 29일 아시아 전교를 목적으로 미국 뉴욕(New York)주에서 월시 신부(J. A. Walsh, 1867~1936)와 프라이스 신부(T. F. Price, 1860~1919)가 주도하여 창설하였다[7]. 메리놀회는 교황청에 의해 아시아 전교의 첫 대상지로 중국 광둥(廣東)·광서(廣西) 교구를 위임받자 1918년 9월 처음 중국에 선교사를 파견했다. 이후 메리놀회 소속 선교사들은 영역을 넓혀 중국·만주·한국·일본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다가 1941년 11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에 의해 적으로 간주되어 억류되거나 추방되었고, 1950년 중국이 공산화되자 중국에서도 완전히 철수했다[7].

1922년 11월 교황청이 메리놀회에 한국 평안도 지역 전교권을 위임하자 소속 선교사들은 1923년 5월 입국하여 전교활동을 펼쳤다. 1927년 3월 평양지목구(知牧區)로 설정되고 1939년 7월 평양대목구(代牧區)로 승격되는 등 발전을 거듭했고, 평양·의주·신의주·진남포 등에 성당을 건축했다. 그러나 1942년 6월 1일 일제에 의해 소속 선교사들 모두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며 전교활동은 막을 내렸다[7].

2.2 해방 후 청주교구와 파지(巴智) 주교

해방 후 메리놀회 선교사들은 1946년 5월 남한으로 재입국하여 청주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53년 9월 충북지역이 서울교구 소속 감목대리구(監牧代理區)로 설정되자 이 지역 전교를 일임받는다. 이후 1958년 6월 서울교구로부터 독립하여 청주대목구가 되고 1962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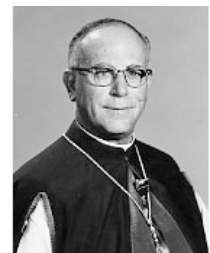


Fig. 2. J. V. Pardy
source: [10]

청주교구가 되었다[7]. 이 와중에 메리놀회 관할은 유지 당시 초대 감독대리로 임명된 이는 메리놀회 파지 신부(한국명, 이하 외국신부 이름은 모두 한국명을 우선함, J. V. Pardy, 1898-1983)이다(Fig.2). 그는 1958년 6월 주교이자 청주대목구장으로, 그해 11월 청주교구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다가 1969년 6월 사임했다. 그런데 그는 1932년 이미 평양지목구로 입국하여 이듬해부터 평북 의주성당 주임신부로 있다가 1941년 12월 일제에 투옥되어 6개월간 옥고를 치른 후 강제 추방되었고 1952년 재입국하여 거제도과 마산의 포로수용소에서 군중신부로 활동하다가 1953년 9월 충북 장호원성당 주임신부로서 청주교구로 돌아온 바 있다[7].

따라서 청주교구 메리놀회 관할 성당 건축의 역사(1953-1969)는 파지 주교의 충북지역 활동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특히 그는 스스로를 ‘건설 주교’라 부르고 건설이 ‘취미’라고 할 만큼[11] 주교임명 직후부터 재임 11년간(1958-1969) 성당·공소·사제관 등의 건축에 적극 나섰고 덕분에 재임기간에 18개 성당이 건축되었다.

2.3 박태봉의 건축활동과 내덕동성당의 건축

파지 주교의 왕성한 ‘건설’ 뒤에는 박태봉(朴泰鳳, ?~1984)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평양 근처 작은 마을 출신으로 서포 평양교구청(Fig.3, 1931)에서 당시 평양대목구 오셰아 주교(W. F. O’Shea, 1884-1945)에게 “언어”를 가르쳤고[12] 바로 옆 서포성당(Fig.3)의 “본당 회장”을 맡았다[13].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후반 그는 일본인 건설회사에서 “건축가 보조”로 일했다[12]. 보조라는 직책이 건축가를 도와 도면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을 보조하는 역할 정도였겠지만, 평양·청주 양 교구에서 그를 알고 지낸 정안빈 신부(R. M. Lilly, 1928-2016)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높은 직책을 결코 주지 않았다고 덧붙임으로써 박태봉의 전문성이 낮지 않았음을 시사했다[12]. 박태봉이 서포평양교구청이나 서포성당 건축에 참여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Fig. 3. *Seopo* catholic church source: [7]

박태봉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한으로 피난 와서 메리놀회 관할 청주교구에 자리 잡고 파지 주교의 “협력자이자 친구”로서 성당을 비롯해 주교가 주도한 모든 건축에 “전문가로서” 헌신했다[12].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메리놀회가 청주교구를 관할한 초기인 1954년 박태봉은 파지 주교에 의해 옥천성당(Fig.4)의 공사감독으로 파견된 바 있다[6]. 또한 1956년 신축된 진천성당(Fig.5)의 계획과 공사를 파지 주교와 함께 했고[12] 1961년 신축된 오송성당(Fig.6)의 설계 및 공사를 맡았으며[14] 1963년 신축된 청주 서운동성당(Fig.7)을 신축할 때는 “설계도를 그리고 공사를 감독하고 그 이상의 많은 일”도 했다[12].

앞서 언급한 정안빈 신부는 메리놀회의 청주교구 전교 활동을 정리하면서 “1950년대와 1960년대 파지 주교에게 고용된 청주의 건축가는 박태봉 요셉이다. 그는 모든 프로젝트의 건설을 감독했다”[12]라고 회고했다.



Fig. 4. *Okcheon* catholic church source: [15]



Fig. 5. *Jincheon* catholic church source: [16]



Fig. 6. *Osong* catholic church (photo by author, 2020.2.22.)



Fig. 7. *Seoun-dong* catholic church source: [16]

3. 청주 내덕동 주교좌성당

내덕동성당은 주교좌성당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건축되었다[17]. 1960년 8월 22일 신축공사 정초식이 있었고[17] 1961년 준공되어 그해 10월 11일 낙성식이 치러졌다[18]. 준공 이듬해인 1962년 3월 주교좌성당으로 격상되었다.

김정신은 이 성당의 설계자로 파지 주교를 특정했지만 [3], 이를 증빙할 1차 사료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2.3

에서 살펴본 대로 박태봉은 해방 전 건축전문가로서 서포 평양교구청과 서포성당을 경험했고 해방 후 진천·오송성당의 설계를 했을 뿐 아니라 교구 내 “모든 건축공사를 감독했다”[12]. 그가 내덕동성당 신축도면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을 맡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3.1 내덕동성당의 건축적 특징

내덕동성당에는 ‘청주 성가성당 신축공사 설계도’라 적힌 도면 5장(sheet)의 청사진이 소장되어 있다. Table1은 그 도면 정보를 정리한 것이다.

공사용 도면의 일부에 불과하고 작성자 작성일 등이 표기되지 않아 아쉽지만, 이 도면을 분석하면 서론의 4가지 건축적 특징(A~D)과 구현방식까지 잡아낼 수 있다.

Table 1. Information of the analyzed data

sheet title	sheet no.	drawings	scale
New Construction Plan of Holy Family Catholic Church in Cheongju	①	Foundation plan, 1 st Floor plan, Ceiling plan, Roof plan	1/200
	②	Front elevation, Rear elevation, Right side elevation	1/100
	③	A-A' Cross section	1/30
	④	B-B' Cross section, C-C' Cross section	1/30
	⑤	Front elevation & Section of Bell tower	1/20

구조부터 살펴보면, 벽체는 붉은 벽돌 조적조 화려식 쌓기로 했고, 1층 바닥은 2가지 방식으로 했는데 마루를 위 마루널 깔기와 지면에 바로 RC 슬라브를 친 후 인조석 깔기를 했다(Fig.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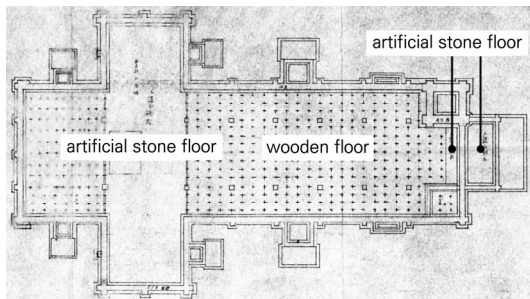


Fig. 8. Basement plan drawing of Naedeok-dong cathedral source: [19]

2층 성가대석은 I형강 보를 횡으로 건 후 그 위 직각으로 지름 8치(1치=3.03cm)의 원형 목재 보를 걸고 마루널을 깔고(Fig.9) 지붕틀은 쌍대공 목조 트리스를 짰(Fig.10) 복합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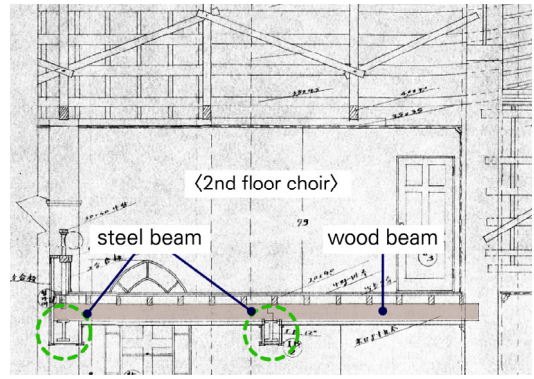


Fig. 9. A part of longitudinal section drawing(choir) of Naedeok-dong cathedral sourc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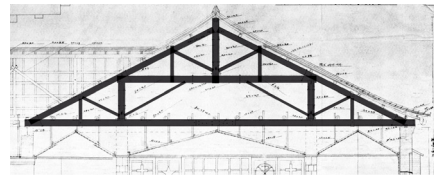


Fig. 10. A part of cross section drawing (roof truss) of Naedeok-dong cathedral source: [19]

평면도와 정면도에서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면, ①(A) 라틴 십자형 평면도(Fig.11)에서 신자석(nave+aisle)은 6칸(bay) 바실리카식인데, ②(㉔)제단 뒤 앵스 위치와 좌우 트랜셴트에 모두 별도 입구를 내고 ‘제단간’과 각각 유리 미서기문(Fig.12)과 커튼으로 구획한 후 필요에 따라 독립된 ‘소성당’과 ‘옆성당’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로 소성당은 오랫동안 추운 겨울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본당 대신 미사에 사용되었다. 이런 평면계획은 서론에서 언급한 특징 A와 D, 즉 라틴 십자형 평면이되 좌우대칭을 고수하지 않고 자유로운 공간구성과 융통성 있는 공간사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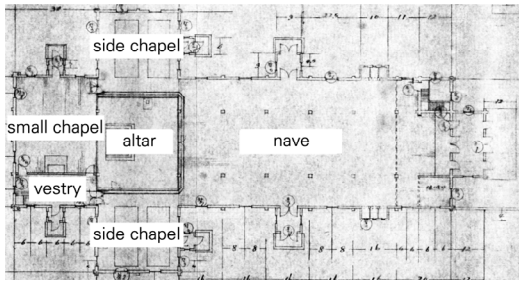


Fig. 11. First floor plan drawing of Naedeok-dong cathedral source: [19]



Fig. 12. Glass wall behind the altar of Naedeok-dong cathedral (photo 1963.1.15.) source: [7]

정면도(Fig.13)를 보면, ③(㉞)본체-나르텍스-종탑에 걸쳐 중국풍 지붕을 채택하고 ④(㉟)종탑에는 가로띠를 대어 3분할한 후 상단에 사각형 개구부를 내고 안쪽에 간단한 장식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면도를 통해 다른 특징도 추출할 수 있다. ⑤나르텍스 합각면을 본체 합각면보다 조금 좁고 낮게 돌출시켜 만든 후 약한 첨두아치 출입문 3개를 병렬하고 ⑥정면의 중앙 상부가 아니라 정면 모서리에 종탑을 배치한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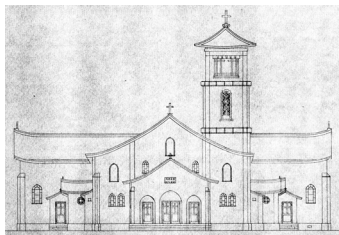


Fig. 13. Front elevation drawing of Naedeok-dong cathedral source: [19]

이 총 6가지 특징 중에서 앞의 4가지(㉠~㉣)는 서론에서 언급한 4가지(㉡~㉤)와 일치하고. 그 중 ③(㉞)과 ④(㉟)는 파지주교 시절 건축된 청주교구 18개 성당 중 내

덕동성당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번에는 내덕동성당에만 보이는 2가지 특징인 ③(㉞) 중국풍 지붕과 ④(㉟)종탑형식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상세도를 통해 살펴보자. 중국풍 지붕의 경우 횡단면도에서 지붕처마 부분을 확대한 Fig.14를 보면 처리방식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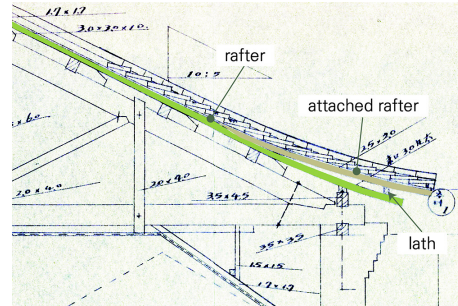


Fig. 14. A part of cross section(roof eaves) of Naedeok-dong cathedral source: [19]

목재 쌍대공 트러스 위에 3.0치 지름의 서까래와 2.5치×2.0치 크기의 각재(角材) 부연을 덧대 겹처마로 구성했다. 그런데 한옥지붕과 달리 보토나 산자 없이 부연을 안쪽 깊숙한 곳부터 길고 처마 끝 조금 안쪽에 초평고대를 끼워서 중국풍 지붕곡면을 만들었다(Fig.15).

종탑형식의 경우 상부를 주목하면, 종탑 입·단면도(Fig.17)에서 보듯, 조적조 벽체의 탑 상부에 철근콘크리트 상인방을 걸어 사각형 개구부를 낸 뒤 안쪽에 독특한 장식처리를 했다(Fig.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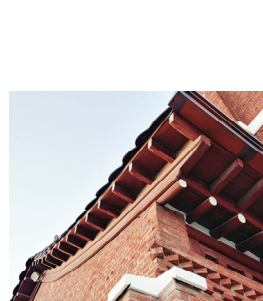


Fig. 15. Roof eaves of Naedeok-dong cathedral (photo by author, 20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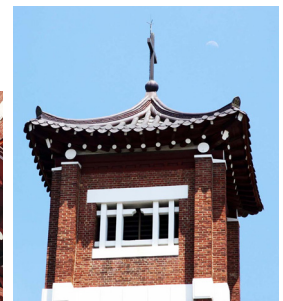


Fig. 16. Top of the bell tower of Naedeok-dong cathedral (photo by author, 20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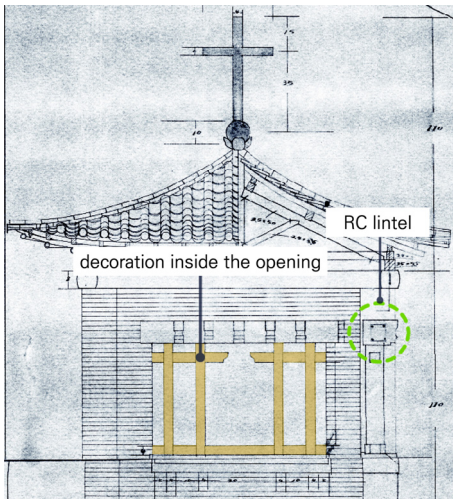


Fig. 17. A part of elevation & section drawing (bell tower) of Naedeok-dong cathedral
source: [19]

3.2 내덕동성당만의 건축적 특징과 그 기원

내덕동성당만의 2가지 특징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메리놀회 본부(Maryknoll center) 건물을 살펴보자. 1911년 창설된 메리놀회는 1916년 뉴욕주 오시닝(Ossining)의 선셋(Sunset) 언덕(일명 마리아의 언덕, Mary's Knoll)에 부지를 구하고 부족한 자금 탓에 계속 증축하는 방식으로 1932년 완공했는데[20], 사무소, 신학교, 부속경당(chapel) 등으로 이루어진 복합건물이다(Fig.18). 설계는 메리놀회 창립자 월시 신부(2.1절 참조)의 남동생 티모시 월시(Timothy Walsh, 1868-1934)가 대표 중 한 명으로 있던 메사추세츠(Massachusetts)주 보스턴(Boston) 소재 설계사무소 '매기니스 앤 월쉬(Maginnis and Walsh)'가 맡았다[21].



Fig. 18. Bird's eye view of Maryknoll center
source: [9]

외관은 두터운 벽체에 반원아치, 원형창 등이 있어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을 연상시키지만, 중앙부 종탑 및 포치의 중국풍 지붕이 눈에 띈다. 특히 종탑 상부 개구부의 목조 가구식 짜임을 변안한 장식 처리는 내덕동성당 종탑형식에 직접적인 참조가 된 것으로 보인다(Fig.19).



Fig. 19. Exterior of Maryknoll center
source: [9]

“메리놀회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건축이 사람들에게 말하는(address) 수단임을 알았기에 중국풍 지붕과 선(線)은 메리놀회가 아시아 전교 및 동양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당시 미국인들에게 표명하기 위해 의도”[21]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동양 탑의 지붕을 얹은 종탑(pagoda-roofed tower)은 메리놀회임을 금방 알아보게 하는 구조물”[22]이다.

바로 이 2가지 특징이 내덕동성당에 충실히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내덕동성당의 “종탑 계획은 메리놀 신학교 종탑 계획에서 비롯되었다”[12]는 기록까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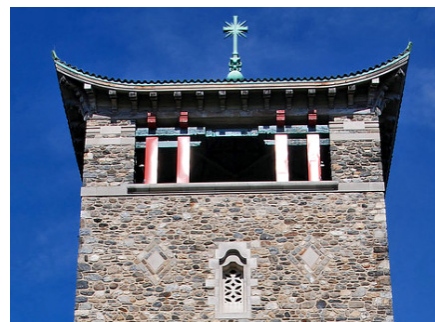


Fig. 20. Top of the bell tower of Maryknoll center
source: [23]

그런데 이 기원 외에도, 내덕동성당만의 이 2가지 특징 이면에는 해방 전 메리놀회 평양교구로부터 이어지는 한양철충 성당의 전통이 있다. 사진으로 전하는 성당들로 판단하건대[24], 평양교구 메리놀회 선교사들은 한옥을 성당으로 전용하거나 서양식 성당을 새로 짓기도 했지만

중요 성당에는 벽돌조 벽체에 기와지붕을 얹는 식의 한양절충을 시도했다. 신의주성당(Fig.21, 1922, 1930중권), 서포 평양교구청 부속경당(Fig.22, 1931), 마산성당(Fig.23, 1934), 진남포성당(Fig.24, 1933)을 대표적인 한양절충 성당으로 꼽을 수 있다.

Fig.22는 서포 평양교구청의 부속경당 쪽 외관을 촬영한 사진인데, 이 교구청은 미국 메리놀회 본부처럼 사무소, 신학교, 한국어학교, 부속경당등으로 이루어진 복합 건물이었다[11]. 그런데 여타 한양절충식 성당들의 팔작지붕과 비교하면, 이 부속경당은 추녀 끝을 유난히 들어 올린 중국풍 지붕처리를 했다(Fig.25). Fig.26은 이 경당 지붕 우측면 끝을 확대한 다른 사진으로 추녀선의 중국풍 곡면처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왜 이런 시도를 했는지 알려주는 문헌자료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마침 미국 메리놀 본부의 건축시기와 겹치고 같은 복합용도이며 대표성을 띤 건물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메리놀회 표식이었으리라 짐작한다.



Fig. 21. *Sinuiju catholic church*
source: [25]



Fig. 22. *chapel of Seopo Maryknoll center*
source: [26]



Fig. 23 *Masan catholic church*
source: [24]



Fig. 24. *Jinnampo catholic church*
source: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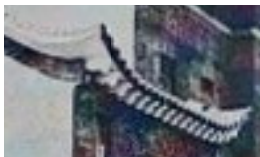


Fig. 25. *chapel of Seopo Maryknoll center*
source: [26]



Fig. 26. *chapel of Seopo Maryknoll center*
source: [28]

또한 부속경당 중앙 상부에 올린 탑(Fig.27)과 신의주 성당 모서리에 세운 탑(Fig.28)의 모임지붕도 중국풍이

라 할 만한 경사를 보여준다. 심지어 서양식으로 지어진 평북 비현성당(1928)에서도 종탑(Fig.29)에는 중국풍 지붕을 얹었다. 비록 종탑 상부 개구부와 그 안쪽 장식 등은 메리놀회 본부 종탑형식과 다르지만 지붕만은 메리놀회 본부 종탑 지붕선을 엄두에 둔 처리로 보인다.



Fig. 27. Top of the bell tower of the bell tower chapel of *Seopo Sinuiju catholic church*
source: [26]



Fig. 28. Top of the bell tower of the bell tower chapel of *Maryknoll center church*
source: [25]



Fig. 29. Top of the bell tower of the bell tower chapel of *Maryknoll center church*
source: [7]

이렇듯 내덕동성당만의 2가지 건축적 특징은 멀리는 메리놀회 본부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가깝게는 해방 전 메리놀회 평양교구의 성당들, 특히 평양교구청 부속성당의 건축적 특징을 전례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 메리놀 관할 청주교구에 신축된 여타 성당의 건축적 특징과 비교

이번에는 청주교구의 최고 위계 내덕동성당의 건축적 특징이 메리놀회 관할 청주교구의 다른 성당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내덕동성당 신축(1961)을 기준으로 앞서 음성(1955), 옥천(1955, Fig.4), 증평(1956), 진천(1956, Fig.5), 괴산(1958), 청산(1960)의 6개 성당이 신축되고, 같은 해에 오송성당(1961, Fig.6)이 신축되며, 뒤이어 부강(1962, Fig.32), (청주)서운동(1963, Fig.7), (충주)교현동(1964), 미원(1964), 내수(1964), (충주)지현동(1965), 수안보(1965), (청주)수동(1966), 보은(1966), 황간(1966)의 10개 성당이 신축된다.

이중에서 메리놀회의 한양절충식 성당 건축 전통을 ‘혼혈아’ 같다고 비판한[4] 성 베네딕토회 소속 독일인 알빈 슈미트(Alwin Schmid, 1904-1978) 신부가 설계한 보은(Fig.30)·황간성당(Fig.31)은 그의 건축의지와 취향이 강하게 반영된 ‘모던(modern)’한 성당으로 메리놀회 성당 건축과 결을 달리한다. 이들을 제외하고 16개 성당과 내덕동성당과 관련성을 살펴본다.



Fig. 30. *Boeun* catholic church
(photo by author, 2020.3.3.)



Fig. 31. *Hwangan* catholic church
(photo by author, 2020.3.3.)

16개 성당 중에서 중국풍 지붕경사는 전혀 없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내덕동성당을 모범으로 삼아 건축되었다고 알려진[7] 오송·부강·서운동성당에서도 마찬가지다. 종탑형식의 경우에도 개구부 안쪽 장식을 좀 더 간략하게 처리한 부강성당 종탑이 내덕동성당 종탑과 가장 유사한 처리이고(Fig.32, Fig.33), 오송성당 종탑(Fig.34), 서운동성당 종탑(Fig.35) 등 나머지 성당의 종탑에서는 다른 형식이 적용되었다(Fig.36, Fig.37 참조).



Fig. 32. *Bugang* catholic church
source: [7]



Fig. 33. Top of the bell tower of *Bugang* catholic church
(photo by author, 2020.2.22.)



Fig. 34. Top of the bell tower of *Osong* catholic church
(photo by author, 2020.2.22.)



Fig. 35. Top of the bell tower of *Seoundong* catholic church
(photo by author, 2020.3.5.)

중국풍 지붕경사와 종탑 개구부 장식을 위한 Fig.14 및 Fig.17 도면 디테일은 공사로 실현하기에 상당히 공이 든다. 내덕동성당의 경우 메리놀회 반예문 신부(R. F. Sullivan, 1927-1954)의 부모가 기부한 7만5천 달러를 재원삼아 예외적으로 공사비가 넉넉했을 뿐 아니라[12] 청주교구를 대표하는 최고 위계의 주교좌성당이 될 것을

염두에 둔 건축이라 가능했다고 보인다. 지역민들에게 구호미를 나눠줘야 했을 만큼 사정이 어렵고[7] “기금이 부족했던 시기”인[12] 1950-’60년대에 지어진 일반 성당에서 정교하고 복잡한 공사가 필요한 선택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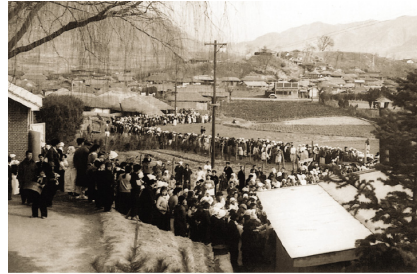


Fig. 36. Relief Supplies Distribution of *Kyohyeon-dong* catholic church
source: [7]

그런데 16개 성당 중에서 종탑을 정면 모서리에 두는 경우가 11개로 압도적으로 많은 점이 주목된다. 나머지 성당 중 진천(Fig.37)·괴산성당(Fig.38)도 제단 쪽에 가까운 측면에 배치했다(괴산은 신축비용 부족으로 1962년 종탑 증축[16]). 이는 파리 외방전교회 관할 성당에서 정면 중앙상부에 종탑을 주로 배치하는 특징과 대비되며, 메리놀회 관할 청주교구 성당의 또 다른 건축적 특징으로 잡을 수 있다. 다만 초기 음성·옥천성당은 정면 중앙상부에, 서운동성당은 제단 뒤쪽 중앙에 종탑을 두었다.



Fig. 37. *Jincheon* catholic church
(photo by author, 2020.2.23.)



Fig. 38. *Goesan* catholic church
(photo by author, 2020.3.2.)

4.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우선, 김정신이 청주교구 메리놀회 관할 성당의 건축적 특징으로 정리한 4가지(㉠라틴 십자형 평면, ㉡벽돌 조적조 벽체 및 목조 지붕틀 위에 기와를 얹되 중국풍 형태의 지붕, ㉢반드시 미국 메리놀회 본부 종탑을 따르는 종탑, ㉣자유로운 공간구성과 융통성 있는 공간사용) 중에서 ㉢중국풍 형태의 지붕과

©미국 메리놀회 본부 종탑을 따르는 종탑은 내덕동성당만의 특징임을 고찰하고 신축공사용 시공도면 분석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밝혔다. 또한 메리놀회 관할 청주교구 성당 18개 중 11개 성당에서 일관되게 '㉔정면 모서리에 종탑을 배치하는 방식'이 나타나므로, 종탑형식이 아니라 오히려 종탑위치를 청주교구 메리놀회 관할 성당의 건축적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다. Table2는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2. Architectural features of *Naedeok-dong* cathedral(①) and other 18 churche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aryknoll missionaries in Cheongju diocese(②)

no.	Architectural features	①	②
㉔	Latin cruciform floor plan	○	○
㉕	Chinese roof on the main body, narthex and bell tower	○	×
㉖	A bell tower that follows the bell tower of the Maryknoll missionaries' headquarter	○	×
㉗	Free space composition and flexible space use	○	○
㉘	Place the bell tower at the church's front edge	○	○

이어서, 내덕동성당만의 2가지 건축적 특징은 미국 메리놀회 본부의 건축적 특징에 기원을 두고 있음을 고증하였다. 또한 성당 및 종탑의 중국풍 지붕은 해방 전 평양교구청 부속경당을 비롯해 주요 성당에서 먼저 시도되었으며, 평양교구에서 전교활동을 하고 해방 후 성당건축에 적극 나선 파지 주교를 매개로 해방 후 내덕동성당에서 재시도되었음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1차 사료를 근거로 하여 박태봉은 내덕동성당 건축도면을 작성하고 건축공사를 감독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추정했다.

전교지역의 건축형식을 수용함으로써 토착화를 시도하는 메리놀회의 전교방침은 해방 전후로 한양절충식 성당을 통해 이어졌다. 해방 후 지어진 내덕동성당은 그 계보를 충실히 잇고 있을 뿐 아니라 메리놀회 본부의 건축 모티브를 가장 충실히 재현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건물은 메리놀회 아시아 전교이념을 외관을 통해 전교지에 전달하는 한편 선교사들 스스로에게도 소속감을 주고 전교의지를 다지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내덕동성당의 건축적 특징은 분명히 메리놀회 특유의 전교이념을 시각화한 것이지만 상당한 재정적·기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나머지 청주교구 성당들이 훨씬 간략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건축된 것은 건축형식을 통한 토착화보다 재정상황과 인적·기술적 조건에 맞추어

건축하는 실질적 의미에서 토착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내덕동성당의 또 다른 의의는 건물 자체보다는 건축에 관여한 인물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서양 선교단체의 선교이념이 근대기 한국 성당건축의 형식을 주도한 것은 전교회 소속 선교사가 설계자나 공사감독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본 연구를 통해 내덕동성당을 비롯한 청주교구 성당 건축에 깊숙이 관여한 한국인 박태봉의 존재는 귀중하다. 물론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 그가 내덕동성당의 설계까지 관여했는지 등은 확인되어야겠지만, 몇몇 성당을 설계하고 공사도면을 작성했으며 모든 공사의 공사감독을 했다는 기록이 확인되므로, 특정한 양식을 추종하지 않는 메리놀회 특유의 개방성·진취성·실용성과 한양절충식 성당의 구현에 대한 평가의 일부는 그의 몫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폭 넓은 조사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합당한 평가가 내려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1차 사료 발굴을 통해 내덕동성당의 건축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의를 미국 메리놀회 본부, 해방 전 평양교구 및 해방 후 청주교구의 메리놀회 관할 성당들과 관계 속에서 표출하였다. 그러나 내덕동성당의 실제 설계자를 특정하지 못한 점은 아쉽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청주교구 성당들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연구 자료의 추가 발굴과 후속 연구를 통해 내덕동성당의 역사적 가치를 좀 더 정확히 규명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J. S. Kim, A history of Korean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Research Institute for Korean Church History, pp. 57-61; pp.91-94, 1994.
- [2] J. S. Kim, *A Study on the Acceptance and Evolution of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Ph. D. Dissert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137, 1989.
- [3] J. S. Kim, "The Catholic Church Archi. in Korea", *Architecture and Culture*, Vol.47, pp.102-111, April, 1985.
- [4] J. S. Kim, Church architect Alwin Schmid, Bundo publication, p.117, 2007.
- [5] K. H. Shin,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f Catholic Church Cheong-ju Diocese by the Times*, Master Thesis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p.21-88, 2002.
- [6] E. H. Kim, *Studies on the history of Okcheon Catholic church constructions and restoration standard set-up*,

Master Thesis of Mokwon University, pp.33-64, pp.47-48, 2003.

[7] *Cheong-ju* Diocese 50 Years Compilation Committee, *Cheong-ju* Diocese 50 Years History, Vol. I, Catholic *Cheong-ju* Diocese publications, pp.365-502, 2013.

[8] Website of *Pyeongyang* diocese
<http://py.catholic.or.kr/> (accessed May. 2, 2020)

[9] Website of Korean branch of Maryknoll Missioners
<http://www.maryknoll.org> (accessed May. 2, 2020)

[10] Website of Maryknoll mission archive
<https://maryknollmissionarchives.or> (accessed May. 2, 2020)

[11] "Bishop and Construction", *The Catholic Times*, Vol. 246, 1960.9.18.

[12] A. B. Jeong, *Mission in the South*, Lifebook, p.73-115, 2002.

[13] S. H. Choi,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a paid Catechists in Diocese of *Pyeongyang*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1923~1950", *The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 Church History*, Vol.51, p.104, 2017.12.

[14] "The benediction of Osong catholic church in Cheongju", *The Catholic Times*, Vol.284, 1961.6.25.

[15] Website of catholic internet news
<http://maria.catholic.or.kr/> (accessed May. 2, 2020)

[16] *Cheong-ju* Diocese 50 Years Compilation Committee, *Cheong-ju* Diocese 50 Years History, Vol. II, Catholic *Cheong-ju* Diocese publications, pp.83-525, 2013.

[17] "New cathedral corner stone laying ceremony in Cheong-ju", *The Catholic Times*, Vol.244, 1960.9.4.

[18] "The magnificent benediction ceremony of Nadeok-dong Choir Cathedral", *Kyeong Hyang Magazine*, Vol.53, No.11, p.51, 1961.11.

[19] The construction drawings for the Cathedral *Naedeok-dong*(5 sheets)

[20] M. Jang, "Bishop Walsh, the president of the Maryknoll and his mission", *Catholic youth* pp.35-36, 1933.8.

[21] J-P. Wiest, *The Maryknoll in China*, M.E. Sharpe, pp.281-296, 1988.

[22] J. B. Munch, "How the "Sidewalks of New York" Came to Maryknoll", *The hudson valley regional review*, p.93-95, Vol.11. No2, 1994.

[23] <https://www.flickr.com/photos/> (accessed May. 2, 2020)

[24] Website of the north catholic church of my heart
<http://www.mynkchurch.co.kr> (accessed May. 20, 2020)

[25] "Success in restoring the design drawing of *Pyeongyang* Seopo Maryknoll center and *Sinuiju* catholic church", *Catholic Peace Newspaper* Vol.865, 2006.4.2.

[26] *Maryknoll in Korea* (A leaflet of Maryknoll 60th anniversary memorial of Korea mission), 1984.

[27] "Jinnampo catholic church", *Catholic Peace Newspaper* Vol.917, 2007.4.22.

[28] J. S. Lee, *Father Mok Yoan*, Sisters of Our Lady of Perpetual Help, p.218, 1994.

김 명 선(Myungsun Kim)

[종신회원]



- 199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2004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한국근대건축사, 건축문화재, 건축리모델링

이 정 우(Jeong-Woo Lee)

[정회원]



- 1989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석사)
- 2009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건축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관심분야>

학교건축, 한국근대건축사